

국회 극한 대처... 이번주가 고비

공은 민주당으로... 여야 대화 물꼬 틀까

한나라 "임시국회내 법안 처리 고집 않겠다"

민주 "한나라 조건 없이 제의뎌 만날 용의"

국회 사무처가 민주당의 국회 농성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에 국회 사무처까지 가세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당분간 법안의 직권상정 자체를 약속하면서 여야간 대화를 중용, 이번 주에 전개될 여야 간 대화 시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폭력 난무하는 국회=국회 사무처는 3~4일 국회 경위와 방호원을 동원, 민주당의 국회 농성 강제해산

을 시도했다. 특히 3일 해산 과정에서 농성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부상자가 속출했다.

더욱이 국회 사무처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농성을 지속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도하는 등 양 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7대 국회 때 탄핵 역풍을 경험했던 한나라당은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지켜만 보면서 민주당의 국회 농성 해제를 촉구했다.

◇여야 대화 재개되나=여야간 대

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있다. 김 의장이 4일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 대화를 다시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나라당도 이번 임시국회(8일 종료) 내에 법안 처리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박희태 대표가 "당도 폭 넓고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 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하지만, 대화 시작의 전제 조건으로 '국회 농성을 푸는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김 의장의 제안에 "환영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조건 없이 대화를 제의한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오는 8일 이번 임시국회 폐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들을 빼기는 어렵다고 덧붙혔다.

◇경찰 진입 논란=국회 사무처가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불법 점거 사태를 해제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한 것을 놓고 사무처와 민주당 간에 위법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 인력 증원을 요청, 현재 900여명의 경찰이 분청을 에워싸고 있는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4일 사무처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고 경찰을 불법 동

원했다고 반발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144조에 근거해 경찰을 국회에 투입하려면 김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런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무처는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한 것이 의원가택권 보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국회 사무처가 국회법 150조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인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분청 내 경찰 투입 가능성까지 추측하고 있어 향후 사무처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호권-국회의장만이 발동... 경찰 동원

질서유지권-의장·상임위원장 행사 가능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및 국회 사무처의 강제해산 시도로 국회의장의 물리적 권한행사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쓸 수 있는 '물리적'은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등 2가지로, 국회법상으로는 보면 내용상 그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경호권은 '회기중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호권을 행한다', 질서유지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제지·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호권(국회법 제143~

144조)은 의장만이 발동할 수 있고 일반 경찰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질서유지권과 차이가 있다.

정치적 의미로 보았을 때 경호권은 국회 물리적 행사의 최종수단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우리 의정사에서 모두 6차례 행사됐으며 매년 파국을 초래해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의장은 특히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경위를 두고 필요할 때에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 일반 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 대국회 호소문

경제 5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한다.

간담회에는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참석하며, 호소문은 경제단체 간에 조율을 거쳐 5일 확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농성 퇴거를 요청하는 경위들에게 민주당 당직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낮 보좌진들 건물 밖 끌려나와

오후 5시50분·8시50분 '반짝 충돌'

■ '로텐더홀 작전' 시간대별 구성

국회 사무처가 3일 이른바 '로텐더홀 퇴거작전'을 전개, 민주당측과 극심한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본회의장 주변에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전운이 감돌았다.

로텐더홀이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지붕이 반구(dome) 형태로 된 원형 건축이나 대형방을 의미하는 '로타운다'(rotunda)에서 비롯됐다. 커다란 돔 지붕을 지니고 있는 국회 의사당의 로텐더홀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이번 점거사태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다음은 시간대별 상황. ◇3일 오전 10시 사무처 퇴거 요청=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10시께 자료를 내고 "낮 12시까지 로텐더홀과 주변 복도의 농성을 해제하고 불법 부착물과 시설물을 즉시 철거해달라"고 촉구했다.

◇낮 12시50분, 1차 작전 개시='국회 경위' 점거를 입은 경위 60여명과 노타이 정장 차림의 방호원 80여명 등 150여명이 3층 귀빈식당 쪽 계단을 통해 로텐더홀로 기습적으로 들어와 '행동개시'에 들어갔다.

고성과 몸싸움이 계속된 가운데 일부 보좌진은 경위들에 의해 팔다리가 들린 채 국회 본관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다 1층 창문 등을 통해 재진입을 시도했다. 사무처측은 일단 오후 1시30분께 철수했다.

◇오후 5시, 2차 시도 경찰병력 증원요청= 때 소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던 본회의장 주변은 오후 5시께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경위와 방호원들이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 일부를 끌려내자 최재성 강기정 백원우 의원 등 일부 386 의원들은 아예 본관 건물 정문 현관 앞에 드러누웠고 이 과정에서 정면충돌 양상을 빚었다.

◇오후 5시50분-8시50분, 3, 4차 시도 '반짝 충돌'= 오후 5시50분과 8시50분께 이뤄진 3, 4시도는 각각 10분 정도의 '짧은 전투' 후 경위들이 일단 철수하면서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3차 시도에는 경위 50여명이 3층 귀빈식당 쪽 통로를 통해 진입했고, 4차 시도 때에는 100명에 가까운 경위들이 방호원들이 터준 정문 현관으로 순식간에 들어왔다. 3차 시도가 이뤄진 시각, 경위 30여명은 본회의장 내 4층 방청석으로 통하는 유리문을 깬으며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본회의장 진입로 확보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오전 7시, 오후 1시 45분 재차 시도=경위 60여명이 로텐더홀에서 농성자들과 대치하며 5번째 강제진입에 나서는 듯했으나 10분간 서 있다가 돌아갔다. 오후 1시40분에도 경위 50명이 몰려왔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연합뉴스

教育事業者를 모십니다.
교육자적 신념과 사업자의 열정을 가진 경영 파트너를 초대합니다.

1. 전문교육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유통·판매
2. 교육사업자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유통·판매
3. 교육사업자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유통·판매

모든 회원의 가치를 실현하는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 전문 기업

■ 사업 아이템: 현대, 중국어, 특색: 논술, 한문, 국어, 영어, 수학, 공학, 학습교재
■ 사업 대상: 1. 개인학습의 1차 방문 학습지 사업 2. 유치원, 방과 후 수업, 비유치 학습 등
■ 사업 지역: 서울, 부산, 광주, 평택, 진주, 진해, 밀양, 파주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jingone.co.kr | 전화: 02-2202-9100 | 팩스: 02-2202-9100, jiangki@jingone.co.kr

www.jingone.co.kr / www.jingoneparis.co.kr / www.jingonichinese.com